

1분기 신설법인 2만6951개...역대 최고

올해 1분기 신설법인이 2만7000여개로 역대 분기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신설법인은 2만695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8%(204개) 증가했다. 3월 신설법인은 지난해에 이어 제조·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1분기 신설법인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5546개(20.6%) ▲제조업 5049개(18.7%) ▲부동산업 3151개(11.7%) ▲건설업 2998개(11.1%) 순으로 많았다. 제조업에서는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제조업 등 세부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337개)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878개) 늘어난 1만7671개를 기록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부동산업(693개 증가) ▲정보통신업(176개 증가) ▲전문·과학·기술

3월에만 9378개...전년 동월 대비 1.6% ↑

서비스업 6개월 연속 증가세...성장 지속

(141개 증가) ▲운수·창고업(86개 증가) 순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9299개(34.6%) ▲50대 7055개(26.2%) ▲30대 5761개(21.4%) 순으로 신설 법인이 많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신설법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층(39세 이하) 신설법인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60세 이상 신설법인 수는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에서는 ▲정보통신업(102개 증가) ▲전문·과학·기술(32개 증가)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신설법인은 제조업(161개 증가)을 중심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은 695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39개) 늘었으며, 남성 신설법인은 1만9997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0.3%(65개) 증가했다. 여성 신설법인이 남성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591개 증가) ▲부산(120개 증가) ▲대전(40개 증가)을 중심으로 법인이 신설됐다.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신설법인 수는 1만6271개(60.4%)로, 수도권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3월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152개) 늘어난 9378개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1953개(20.8%) ▲제조업 1737개(18.5%) ▲부동산업 1127개(12.0%) ▲건설업 942개(10.0%) 순으로 신설법인 수가 많았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132개) 늘어난 1737개를 기록,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298개) ▲정보통신업(76개) ▲숙박·음식점(41개) 순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411개)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3273개(35.0%) ▲50대 2414개(25.8%) ▲30대 2039개(21.8%) 순으로 신설 법인이 많았다. 청년층(39세 이하)에서는 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제조·정보통신업 등 업종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14개) 증가했다.

뉴스스



삼성 시리즈 사상 최고 사양 휴대폰에 LG는 듀얼스크린·가격으로 '맞붙'

5G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가 갤럭시S10과 LG전자 V50 씽큐가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갤럭시 시리즈 사상 최고 스펙을 갖춘 갤럭시S10 5G에 대해 LG V50 씽큐는 듀얼스크린과 저렴한 가격으로 맞붙을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부터 V50 씽큐 예약판매를 시작하며, 10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당초 LG전자는 지난해 19일 V50 씽큐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5G 품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종 출시 시점을 조율해왔다.

LG전자가 출시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와 5G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출시한 갤럭시S10 5G만이 유일한 5G 지원 단말이었다.

갤럭시S10 5G는 갤럭시 시리즈 사상 최고 스펙으로 꼽힌다. 우선, 갤럭시S10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6.7인치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후면에 1200만 듀얼픽셀 카메라·1600만 초광각 카메라·1200만 망원 카메라·3D 심도 카메라 등 쿼드 카메라 전면 듀얼 카메라가 장착된다.

특히, 3D 심도 카메라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적외선 기술을 활용해 심도를 감지하는 기술로 동영상 라이브 포커스와 장면추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S10 5G는 저장용량에 따라 256GB와 512GB로 구성됐다. 배터리용량은 4500mAh이며, 25W의 급속 충전 기술 등이 제공된다.

V50 씽큐의 장점은 '듀얼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5G 스마트폰임에도 저렴한 가격 등이 꼽힌다. LG전자는 5G서비스에 최적화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1만9000원 상당의 듀얼스크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듀얼스크린은 여담을 수 있는 플립(Flip) 커버 안쪽에 6.2인치 올레드 화면이 있다. '세컨드 스크린'을 화면 바깥으로 끌어내 멀티태스킹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터치식이라 필요할 때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V50 씽큐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으로 갤럭시S10 5G보다 저렴한 편이다. 갤럭시S10 5G의 초기 출고가는 256GB모델 139만7000원, 512GB모델 155만8500원이다.

삼성전자는 V50 씽큐 출시에 앞서 갤럭시S10 5G의 출고가를 낮추는 등 준비에 나섰다.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와 협의해 지난 1일 512GB모델 출고가를 9만9000원 내린 145만7500원으로 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2020년형 '스팅어' 출시...3524만~4982만원



기아자동차는 2020년형 '스팅어'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형 스팅어는 한층 높아진 안전성과 강화된 상품성이 특징으로 전방충돌방지(F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등을 포함한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2.0T·2.2D 플래티넘 모델부터 기본 적용됐다. 3.3T GT 모델에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 따라 전조등 각도를

좌우로 조절하는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DBL)'와 스포츠 모드 연동 운전석 볼스터 조절장치가 새롭게 적용돼 안전성과 다이내믹한 주행 감성이 강화됐다.

2020년형 스팅어는 모든 모델에

2.0T·2.2D 플래티넘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형 스팅어의 가격은 ▲가솔린 모델 2.0T 프라이미 3524만원, 2.0T 플래티넘 3868만원, 3.3T 4982만원 ▲디젤 모델 프라이미 3740만원, 2.2D 3868만원, 플래티넘 4211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2020년형 스팅어는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 확

전방충돌방지 등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 탑재

전 모델 윈드실드 차음글라스 탑재로 정숙성 ↑

윈드실드 차음글라스 등이 탑재돼 정숙성이 개선됐으며 공기청정모드 역시 신규 적용되며 사용 편의가 강화됐다.

또한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3.3T GT모델에만 적용됐던 다크레드팩인테리어를

대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숙성을 개선하는 등 상품성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에 걸맞은 주행감성과 강화된 안전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목으로 추가됐다.

신정된 업체는 도·소매업 12개, 음식업 23개 업체다. 지역별로 서울·강원·경기·충남 각 2곳, 인천·대전·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 각 3곳, 경남 6곳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 전문성 등을 갖춘 업체 선정에 중점을 두어 평가위원회를 격월 개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중기부·소진공, 올해 첫 백년가게 35곳 선정

4월 말 평가위 최종 선정

제로페이 평가 항목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올해 첫 백년가게로 3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자영업자의 빈번한 창·폐업 속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는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백년가게 확인서 및 고유현판을 제공한다. 홍보·마케팅·컨설팅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지난 4월 말 백년가게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류심사·현장 평가를 통과한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경영·마케팅 등에서 혁신성 평가해 35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제로페이(모바일 직불결제) 가입 여부 및 지속 가능성 여부도 평가 항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